

“광주는 ‘임을 위한 행진곡’ 당당하게 부를 것”

광주시·시의회·시교육청·5개구·구의회 공동 성명 “모두 함께 부를 국민 노래”...5·18기념곡 수용 촉구

윤장현 광주시장과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5개 자치구청장 및 자치구의회의장 등은 17일 “광주는 모든 국민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당당하게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은 자랑스런 국민의 노래입니다”란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국가보훈처의 반대로 5·18민주화운동 제35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무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노래가 민주, 인권, 평화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항거한 5·18의 상징적 노래요, 국민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할 국민의 노래라는 점에서 5·18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역사성을 계승하고자 하는 광주시민의 열망에 공감하고 지지를 표한다”면서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 운동기념식이 5·18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의 불참으로 반쪽행사가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채택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국가보훈처가 마치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노래인양 공식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5·18기념식 제창 요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구했다.

이들은 더불어 “지역 정치권과 5·18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기념일 기념곡 지정 관련 법안이 신속히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국민의 노래로 당당하게 울려 퍼지도록 국민적 확산·보급에도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주의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다. 피를 토하며 목이 터져라 함께 불렀던 그날 그 노래를 누구도 지울 수 없다”면서 “이 노래를 통해 5·18을 살아있는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로 함께 깨우치고, 함께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주요 공직자들은 5·18 35주년을 맞아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윤 시장과 시청 간부, 조영표 시의회 의장, 시의원, 자치구 및 산하기관 간부들은 지난 15일 정부의 공식 기념행사에선 제창이 허용되지 않지만 영령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오월정신의 계승 의지를 담아 묘지를 참배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다.

윤 시장은 묘지 방문록에 ‘오월은 승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광주로 계승하겠습니다. 나눔과 배려, 연대로 열린 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창” 국가보훈처가 올해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가운데 17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윤장현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손학규 조용히 개인 참배, 안철수 전야제까지 참석 이희호 이사장 방명록에 ‘5·18! 임을 위한 행진곡’

정치권 주요인사들 5·18민주묘지 참배 줄이어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가 줄을 잇고 있다.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묘역을 찾아 오월 영령을 참배했다. 방명록에는 ‘5월의 님을 가슴에 새기며 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손 전 대표는 수행원 등 3~4명만 대동한 채

개인적으로 조용히 참배한 뒤 묘지를 떠났다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은 전했다.

새정치 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이날 진도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희생자들의 님을 위로하고 9명의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했으며 18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리는 3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엔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이 5·18 민주묘지를 찾아 민주 영령의 님을 기렸다. 이 이사장은 방명록에 ‘5·18!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휠체어를 타고 묘역을 찾은 이 이사장은 때때로 부축을 받기도 했지만, 휠체어에서 내려 직접 5·18 민주항쟁 추모탑으로 걸어가 참배를 하는 등 이전보다 건강이 다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5·18단체 “국민통합 저해 박승춘 보훈처장 사퇴하라”

새정치광주시당 “박근혜정권 5월 정신 훼손 중단하라”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제창 불가를 발표한 데 대해 5·18 단체들과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5월 정신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과 5·18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가보훈처는 오랫동안 항쟁의 진실을 은폐하는 데 저질러진 ‘색깔론’을 다시 꺼내 5·18 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님을 위한 행진곡 불허 방침은 2015년 국가가 또다시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행하고 있는 끔찍한 국가폭력”이라며 “박근혜정권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정부기관을 계속 방기하

는 것은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된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이행을 2년째 외면하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처는 국론분열을 앞장서 부추기는 국론분열자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국가보훈처가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돼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 식순에서 제외하고 합창단 합창이라는 만행을 또 다시 반복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합창은 관창과 제창은 국민통합

을 저해한다는 논리가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저급한 논리에 황당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당은 또 “독립, 호국, 민주화 관련 추모 행사를 통해 민족정기 선양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국가보훈처의 존재 이유임에도 국민과 국회가 명령한 기념곡 지정과 제창을 거부하며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당은 “박근혜 정권이 진정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국가보훈처를 앞세워 5·18을 더 이상 폄훼하지 말고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 식순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김무성 대표 10여분 승강이...주최측 요청에 자리 떠

5·18전야제 퇴장 안팎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여당 대표로는 처음 5·18 전야제에 참석했지만,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10여분 만에 자리를 떴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7시10분께 당직자와 수행원, 사복경찰 등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35주년 광주민주

중항쟁 전야제 행사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시민들과 일부 단체 회원들이 행사장 진입을 막았지만, 당직자들의 도움으로 행사장 무대 제일 맨 앞쪽 도로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하지만, 시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김 대표는 물러가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주최 측이 행사까지 중단한 채 김 대표에게 행사장을 떠나 줄 것을 요청하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행사장을 빠져 나갔다. 이에 대해 일

부에서는 여권 대표가 처음 전야제에 참석하는 등 성의를 보였는데 참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되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2015. 6. 6(금) ~ 8(일) 11:00~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228-1199

사전 예약 시, 다양한 특전 제공
하니문 상품 예약 시 최대 140만원 혜택 제공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1만원 권 증정

제 9회 하나투어 여행박람회

하나이니문 박람회 추천 상품

클래식 발리 6일(2+2) - 풀만 + 불가리

총상품가 2,392,200원~

현지지불 ▶ 가이드 + 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6월 ~ 12월 토/일/월

특 전 : 프리미엄 오션뷰, 풀빌라로 무료 업그레이드
아로마 오일 마사지 + 초콜릿 스파 + 황실 전통 치압 마사지
빌라 내 레스토랑 런치&디너 1회 제공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통료, 관광상품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상품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임.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여행상품] 내용은 인터넷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추가] 현지에서 고가의 선착순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그외 다른 선택/추가 상품도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체별 내용은 인터넷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미션 상점에 대해 여행박람회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상품사 등록번호 제29004-1993-9 (종로구청)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4층 하나투어 ■ 최소 출항인원 10명 /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급관광 항공/버스/해상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내선번호 070) ■ 영안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료 또는 항공편의 변경/취소/환급금의 상환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체재관광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추가 상품도 있으며, 선택/추가 상품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추가 금액 및 선택/추가 상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망 | 여행 지체 | 불수 권고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